



광남일보



6 **기아 오토랜드광주, 'EV5' 양산 시동**
 첫 전용전기차·하반기 생산 앞두고 결의대회

8 **청년들 열기 '함평 나비대축제'서 발산**
 이상의 군수 "예술가·관광객에 추억 선사"

9 **정철원 담양군수, 주민자치회 활성화 매진**
 12개 읍·면 회장·간사 등과 소통

13 **평동산업단지운영협, 산불피해 성금 기부**
 김보근 회장 "살의 안정 찾는 데 도움 되길"

조간 제7821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음력 3월 14일)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이날 11분 37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담았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K이니셔티브'라는 국가 비전을 앞세워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영상 메시지 통해 'K이니셔티브' 국가비전 강조
첫 국정 목표 경제성장·대대적 투자로 성장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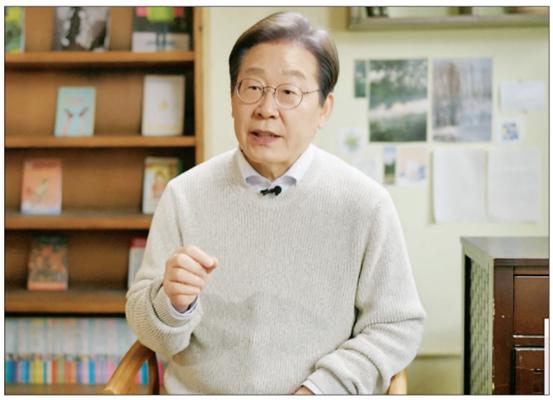
그는 “먹고사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던 시대에 김구 선생이 '문화 강국'을 얘기했다”며 “K컬처에 더해 촘촘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린, 세계사에 없는 K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을 'K이니셔티브'라고 통칭하고 싶다”며 “규모는 작지만 소프

트 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내란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하며, 그 해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의 각오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인공지능 골든타임, 광주가 열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국회에서 ‘속도’와 ‘집적’에 기반한 대한민국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강 시장이 밝힌 3대 방향은 GPU 1만개 증각 확보, 운영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국가AI데이터센터 100% 활용,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등이다.

강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안도걸·조인철·전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GPU 1만개 확보,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 등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주는 국내 유일 국가AI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등 인프라-기업-인재로 이어지는 충분한 경험이 축적된 데다 풍부한 전력과 부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적 강점까지 가진 유일한 도시”라며 “광주는 대한민국 AI 성장판을 열기 위한 최적지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려면, 이미 광주에 구축된 국가AI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일과 AI반도체-기업-인재를 위한 외국인 AI반도체의 국산화 전환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능 국산 AI반도체 개발과 상용화는 산업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광주는 지난 3년간 국내 기업들과 국산 AI반도체에 대한 실증과 검증 사업을 진



강기정 시장이 10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조인철·안도걸·전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AI 관련 예산확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강기정 시장, 국회서 'AI 도약' 기자회견...3대 방향 제시
GPU 1만개 확보·데이터센터 예산·컴퓨팅센터 유치 절실

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AI반도체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계엄·탄핵으로 제때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가 가진 GPU자원을 절반만 활용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예견되는 등 그동안 순항해 온 광주의 AX실증 2단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이미 구축된 인프라조차 사용하지 못하면서 더 큰 인프라 구축

한다”며 “이는 국가AI데이터센터가 있는 광주에 쫓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광주의 국가AI데이터센터의 자원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50% 가동으로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AI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예산 지원을 서둘러 100%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장소는 광주이길 바란다”며 “9000명의 부지와 충분한 전력,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까지 모두 갖춰진 도시가 광주이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오월단체, 5·18 정신 훼손...민주주의 가치 왜곡 등 규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오월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5·18민주화운동단체(5·18민주유공자지켜야 할 헌법 가치의 뿌리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을 스스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사)5·18서울기념사업회와 (사)오월어머니집도 성명서를 통해 “5·18 변절한 이완규는 헌법재판관을 사퇴하고 영령 앞에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식방 다음날 윤석열을 만나고 온 한덕수에 의해 지난 8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지명은 앞으로 다가올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에서 내란세력을 옹호해 민주시민혁명을 합법적으로 와해시키려는 건악한 음모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완규는 당장 사퇴하고 5·18영령들 앞에 사죄하고, 한덕수는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 놀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원회는 지난 2008년 이 처장을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했다.

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은 특정 정권이나 개인의 공치사가 아닌, 국민 전체가 지켜야 할 헌법 가치의 뿌리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을 스스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사)5·18서울기념사업회와 (사)오월어머니집도 성명서를 통해 “5·18 변절한 이완규는 헌법재판관을 사퇴하고 영령 앞에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식방 다음날 윤석열을 만나고 온 한덕수에 의해 지난 8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지명은 앞으로 다가올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에서 내란세력을 옹호해 민주시민혁명을 합법적으로 와해시키려는 건악한 음모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완규는 당장 사퇴하고 5·18영령들 앞에 사죄하고, 한덕수는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대통령 놀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 높은 주목도 + 저렴한 광고비

이번정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H|주|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062) 223-6511